

# 새정치 당직 인선 비노 대거 약진

### 문재인 대표, 당직 인선 박지원·김한길계 다수 발탁

### 계파분란·천정배 신당론 잠재우기... 호남민심 고려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무총장제 폐지 후 실시한 22일 당직 인선에서 비노(비노무현) 계열 인사들이 대거 약진했다.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탕평'에 최대한 초점을 두고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당론'으로 당을 위협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을 기용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능력은 배제하고 당내 계파 보스들 간 나눠먹기 인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국민에게는 신선감이 떨어지게 비쳤다는 지적이다.

◇김한길·박지원계 전진 배치=문재인 대표의 이번 인선에서 혁신안 통과로 한 달도 안돼 사무총장 자리에서 내려온 '범진노' 최재성 의원을 총무본부장으로 자리이동시켰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한 반

대급부(?)로 조직을 총괄해 총선을 앞두고 '알짜보직'으로 평가받는 조직본부장 자리를 '박지원계'인 이윤석 의원에 맡겼다. 특히 조직본부장은 비노전영이 꾸준히 요구한 자리로, 재보선 이후 계속된 계파 간 인선갈등을 정리하겠다는 문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계도 전진배치됐다. 민생본부장으로 재선의 정성호 의원이 임명됐으며, '범진노'인 강기정 의원이 맡았던 정책위의장 자리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가까운 최재천 의원이 이어받았다.

그리고 전략홍보본부장과 디지털소통본부장에는 계파색이 얹은 안규백, 홍종학 의원을 각각 유임시켰다.

그럼에도, 이번 당직개편이 지도부의 구

상대로 단합의 밑바탕이 될지, 오히려 계파 간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가 공천개혁 작업에 착수하는 등 민감한 시기에, 작은 불씨가 지도부 간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정배' 견제(?)=이번 인선에서는 천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것도 특징이다. 천 의원의 '신당 바람'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 원내대표와 정성호·최재천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천 의원과 함께 '민생모' 모임을 하며 천정배 의원과 가깝게 지냈던 인사다.

아울러 지도부는 이들이 천 의원 당선 후 약화일로를 걷고 있는 호남민심을 추스르는 데에도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인 조직본부장을 박지원계인 이윤

석 의원에 맡긴 것도 호남민심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인사를 단행한 후 문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에게 보내는 글을 올려 "단연컨대 분당은 없다. 통합만이 있을 뿐"이라며 강도높은 어조로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분당·신당론 차단에 나섰다. 문 대표가 분당·신당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처음이다.

문 대표는 "혁신을 거부하고 변화를 회피하는 이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통합의 큰 길을 버리고 분열의 길로 가는 정치는 대외와 어긋난다"며 "국민과 호남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당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지 분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이 변화하고 단결해서 호남에서도, 호남 밖에서도 반드시 이기라는 것이지, 우리 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너뜨리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野 최고위 또 '난장판'

### 이용득 "뚝바로 해" 유승희 "왜 반말이야" 고성·욕설 오가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들이 22일 회의 도중 반말과 욕설을 하며 다투는 등 불협사운 모습을 또다시 연출, 눈총을 받고 있다.

이날 사건은 유승희 최고위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는 자신의 이를 전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유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부정부패 경제인, 부정부패 정치인의 사면을 반대한 것"이라며 "정의의 정치를 위해 보복을 당하는 정 전 의원이 사면 1호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발언이 정치인 사면을 언급하지 말자는 지도부 간 공감대를 향해 "뚝바로 해"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이용득 최고위원은 "왜 걸맞으면 당을 물어뜯고 그러냐"며 불만을 표시한 뒤 유 최고위원을 향해 "뚝바로 해"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유 최고위원이 "왜 반말하세요?"라고 항의하자 이 최고위원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반말을 못하냐. 왜 당을 갖고 물고 늘어지냐고... 당이 싫으면 떠나면 되지, 왜 당을 상처 내고 그러는 거야"라고 돌아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 과정에서 'XX'이라며 욕설까지 섞었다.

유 최고위원은 "내가 언제 당을 흔들었어?"라고 따졌고, 이 최고위원은 "그게 트러블 메이커지"라고 물리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은 회의장 밖으로도 그대로 새어나왔다.

보다 못한 문재인 대표와 오영식·전병헌 최고위원이 "그만 합시다"고 말렸고 당 관계자가 기자들이 회의장 밖에서 듣고 있다고 전한 뒤야야 고성이가 잦아 들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감정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이·유 두 최고위원은 지난 13일에도 공개석상에서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당시 이 최고위원은 당무를 거부해온 유 최고위원이 최고위 부귀 일선으로 "문 대표가 최고위를 둘러러도 운영하고 있다"며 문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자 "공당의 지도부가 전 당원과 국민을 리드할 수 있는 집단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지난 5월8일 최고위원회의 때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으로 추송용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원로들 한자리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 60주년 기념사업회 1차 회의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권도갑 김원기 등과 함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카리스마 없어 죄송합니다"

## 박지원 "호남 호남해서 죄송합니다"

### 새정치, '셀프 디스' 홍보 이벤트 눈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23일 각각 '카리스마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호남, 호남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주제로 셀프 디스(Self Disrespect, 스스로를 깎아 내리는 발언) 홍보 이벤트를 내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홍보 이벤트는 새정치연합에서 영업인 광고 전문가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더 집중되고 있다.

이런 셀프 디스에서 문 대표는 "인권 변호사로 30년을 살다보니 사생활이 후련하게 밀어 붙이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지나치게 신중한 성격이 형성됐다"며 "당 대표가 된 후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답답해 한다"고 털어 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 대표는 이어 "당이 혁신에 나서듯 저도 노력하고 분발할 것"이라며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강한 자의 횡포에는 강하게 맞서는 카리스마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진도에서 태어나 호남이라 눈치보고, 호남이라 소외 당해 서러웠다"며 "정치 입문 이후, 차별받고 소외받는 호남을 저러도 쟁겨야 한다는 생각에 호남 타령을 했었다"고 밝힌 예정이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그 어떤 지역도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다시 뛰겠다"며 "호남, 호남 했듯이 나라, 나라, 국민, 국민하겠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을 맞아 "시원한 정치로 거듭나겠다"는 슬로건도 제시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추경·국정원 해킹 협상 난항 거듭

여야는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일정 및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 대응과 관련해 협상이 나섰으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추경 및 국정원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조 원내수석은 "아직 합의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거의 다 좁혔다. 핵심적인 두 가지 부분만 접점을 찾으면 합의문은 거의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수석은 "합의된 부분

은 부수적이고, 핵심 두 가지가 타결돼야 전체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나머지 부분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쟁점은 추경의 경우 법인세 인상 문제, 국정원 사건 부분에선 정보위 청문회 개최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과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위 차원 청문회 개최를 주장해왔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그동안 협상 내용을 지도부에 보고하고 오후 또다시 접촉에 나섰으나 양당 간 의견 차이가 쉬

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추경의 부족한 세수(稅收)를 확보하는 방식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추경안이 통과될 때 국회 차원에서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부대 의견'을 다는 데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부분에선 새정치연합은 정보위에서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광주 방문



정의당 심상정(사진) 대표가 23일 광주를 찾는다. 지난 21일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첫 지역방문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와 민족민주열사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광주 시민사회단체 원로들과의 간담회, 광주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이후 저녁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금도 정치개혁 골든타임'을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거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투데이 경매**

주월동 아파트단지내 최고상권 편의점, 카페, 학원등 입점추천 지하1층~지상4층  
 대지 236㎡ 건물 594.8㎡  
 감정가 4억 5천 3백  
 최저가 4억 5천 3백

전남 담양군 삼만리 담양 예코 하이테크 농공단지 식품가공공장 (단층건물 4동 기계기구 포함)  
 대지 5636.5㎡ 건물 873㎡  
 감정가 9억 8백  
 최저가 6억 3천 6백

전남장성군 북이면 식품공장 백양사 IC인접 교통입지우수 2012년 신축건물 투자적합 NPL가능, 공장 창고 임대가능  
 대지 9341㎡ 건물 2031㎡  
 감정가 41억 4천 7백  
 최저가 11억 9천

KT&G 본건 OB공정  
 양산동 로케트전자부지 공장용지 81453㎡ (24682평) 일반공업지역  
 감정가 271억4천  
 최저가 152억  
**고수의 창출 가능!**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